

이슈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의 수상한 행방

휴거, 종말, 666 등의 주제를 다뤄 논란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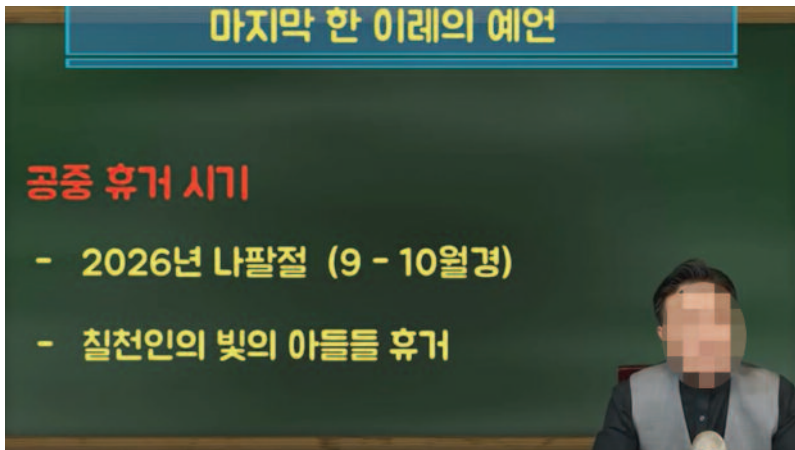
장인희 기자 | sunnet1004@naver.com



본지로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 이 유튜브 채널은 김○○ 장로(존 김)가 운영하며 휴거와 종말을 주 콘텐츠로 다룬다.

치킨게임

2019년 3월 30일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은 김○○ 장로가 운영 중이다. 유튜브상에서는 존 김이라는 미국 이름을 사용한다. 구독자 수는 현재(1월 17일 기준) 4180명이며 총 45개의 동영상에 올라와 있다. 조회 수는 73만 9011회 정도이며 유튜브 개설 목적은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5G 시대에 인류 대 재앙을 예고하는 마지막 화폐 전쟁의 실상과 그 대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휴거되는 날짜를 설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 운영자 김○○ 장로

치킨게임 주제

1) 휴거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의 주된 콘텐츠는 ‘휴거’, ‘종말’, ‘666’, ‘늦은비 성령 연합 축제’ 등이었다. 김○○ 장로의 개인적인 계시와 예언, 꿈, 환상 등의 내용으로 휴거와 종말 등을 이야기했으며, 그만의 계산법으로 특정 날짜를 제시했다. 김씨는 “치킨게임 18탄. 2026 휴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의 시기와 휴거되는 자들의 실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중 휴거의 시기는 2026년 나팔절(9~10월경)로 정해져 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킨게임 22탄. 누가, 언제, 왜 휴거되나?”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5~6절과 13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며 “휴거되는 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며 휴거되지 못한 자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이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칠천인의 빛의 아들들인 남자가 먼저 휴거되고, 여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며 “2029년 속죄절 날에 대환란을 통과한 14만 4000의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입성한다”고 주장했다.

2) 666

김○○ 장로는 “치킨게임 23탄. 666 짐승의 표 아니다(1부)”를 통해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가상 화폐로 정의한 김씨는 “짐승의 이름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상 왕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짐승의 이름 수란 화폐 가치의 단위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 금융 정책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상 화폐인 짐승의 표는 2026년 3월경 중동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디지털 전자 화폐가 개혁되어 등장할 것”이라며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뱀의 후손들이 충만한 수를 나

“영연산 복음” 늦은비 성령 지방연합 순회 세미나 일정

본사 : (해남)남의 주사 / 김 ○ ○ 영동 8803 피구로 태백출판회 직영계실 / 유홍비

1차 대전집회 일정	11월 8일 (수)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대전	http://kko.to/0LUCB0T		
	11월 9일 (토)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11월 10일 (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2차 서울집회 일정	11월 15일 (수)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서울	http://kko.to/mpl/Wry5ip		
	11월 16일 (토)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11월 17일 (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3차 부산집회 일정	11월 23일 (수)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부산	http://kko.to/y9e/BG600		
	11월 23일 (토)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11월 24일 (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4차 전북 고창집회 일정	11월 29일 (수)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전북	http://kko.to/7e1LLk0T		
	11월 30일 (토)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12월 01일 (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영남교회 총합본부 인연집회 일정	12월 04일 (목) 오후 7시 -	이	목사		
	12월 06일 (토)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김	장로		
	12월 07일 (토)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김	장로		
	12월 08일 (일) 주일	1부	9시	이	목사
		2부	11시	이	목사
		3부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김	장로
	인연광역시				
충북도					

모든 지역 참가신청은
충남영동교회 (영동 본부)에 접수문의 바랍니다.
김 ○ ○ 부목사 ☎ / 최 ○ ○ 권도사 ☎
(e-mail 접수) tr@naver.com

NAVER BAND 강역 : 주남영동교회 외 영연산복음으로 가입하시면 실시간 정보가능.

늦은비 성령 집회 일정표

타낸다”고 전했다.

3) 늦은비 성령 집회

김○○ 장로는 “늦은비 성령 집회”라는 집회를 열어 활동하고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집회는 11월 1차 대전집회를 시작으로 2차 서울집회, 3차 부산집회, 4차 전북고창집회 등이었고, 12월에는 주남임재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의 강의 시간이 책정되었다. 강사로는 주님임재교회 담임 이○○ 목사와 김○○ 장로가 맡았다. 김씨는 유튜브에서 다루는 666, 휴거 등의 주제를 집회에서 전했다. 김○○ 장로는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을 통해 늦은비 성령 집회 참가 신청 접수 방법, 서울집회 장소 변경 공지 등의 영상을 만들어 홍보했다. 한편 늦은비 성령 집회를 주관한 주님임재교회 관계자 측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장로는 미국에서 왔으며, 주님임재교회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집회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담임 목사님께서 김 장로의 설교를 듣고 문제점을 발견하셨다. 집회도 진행하지 않고, 강단에도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12월까지 집회를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집회 참석자들에게도 모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킨게임에 빠진 사람들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을 시청한 구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이를 공유했다. 구독자들은 “자녀의 신분과 종의 신분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쉽게 설명해 달라”,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지방 순회 집회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 또한 기대한다”는 댓글을 달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본지로 치킨게임을 제보한 A씨의 경우 “부모님이 순복음 교단의 전도사였다. 하지만 치킨게임에 빠진 후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집회를 쫓아다닌다”며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늦은비 성령 집회에 빠진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치킨게임과 늦은비 성령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본지 편집자문위원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은 “유튜브 치킨게임에서 설파하는 김○○씨의 주장은 건전하지 않은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성

경 해석이 바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잘못된 운동이다”라며 “대개 ‘늦은 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사도의 가르침에도 충실하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성경적 가르침대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유튜브 시청과 집회 참석 자제를 부탁했다. 한편 김 장로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주님임재교회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김○○ 장로와 열흘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빠른 역양으로 성경말씀을 예로 들며 설명하는 김씨의 언변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2026년에 올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소통의 수단인 유튜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여 올바르게 못한 교리를 설파하는 김○○ 장로의 유튜브 채널 치킨게임에 대한 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주

현대종교

후원 문의 02-439-4391